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



名古屋韓国学校 5年生
배혜원(裴惠源)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말을 배워야한다.” 항상 우리 엄마 아빠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전 일본 나고야국립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일본에서 태어났으니깐 저는 당연히 일본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국말을 배우라고 하셔서 “왜요” 하고 질문을 했더니, 엄마말 들으면 좋은 일 생긴다며 무조건 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엄마 아빠 말씀대로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가끔은 늦잠도 자고 싶고, 학교숙제가 많으면 한글공부도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엄마는 내 영당이를 ‘찰찰’ 때리시며, 학교 가서 한글 공부하라고 소리소리 치시죠. 이유를 물어보면 이런저런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렸을 땐 무슨 말인지 잘 몰라 그냥 고개를 끄덕끄덕했죠. 그러던 엄마는 만속스러운 얼굴로 내 머리를 쓰다듬으며, “내 딸 예쁘다. 어른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 법이야” 라고 하시지요.

이 말은 우리 엄마의 18번입니다. 제가 뭐가 물어보거나 하면 항상 끝에는 떡 이야기로 끝나기 때문에 요즘엔 제가 동생들한테 누나말 들으면 떡이 생긴다고 하시죠. 초등학교 5학년인 지금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한글을 배워야 하는 이유를 다시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첫 번째 이유는 말 그대로 엄마 아빠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나또한 한국사람,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하면 바보이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혹시 한국에 나가서 살게 되었을 때 말 때문에 고생하지 않기 위해서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렸을 때 배워야 빨리 배운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여튼 배워야한다고 하시며 ‘떡떡떡’ 하시지요. 제 생각엔 질문에 대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나고야한국학교에서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는 게 재미있어서, 토요일이 아주 기다려집니다. 특히 한글공부가 끝나면 아침에 엄마가 싸주신 도시락을 들고 한국전통악기인 장고를 배우러 갑니다. 장고는 흥이 나고 정말 훌륭한 악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고 배우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싸주신 맛있는 도시락을 친구들과 같이 먹을 수 있어서 더욱더 토요일이 기다려집니다.

지금은 부모님 뜻 만, 제 의지 반으로 나고야한국학교에 다니지만, 엄마가 제 영당이를 때리시며 까지 우리말 공부를 시키시는 이유를 이제는 조금씩 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엄마 말처럼 언젠간 정말 자다가도 떡이 생기는지 꼭 알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혹시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한국 속담을 아시는 분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진짜로 떡이 생긴 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寝ている間に餅が来る ?

名古屋韓国学校 5年生
배혜원(裴惠源)

‘韓国人だから韓国語を勉強しなさい。’いつも私の父母は言っています。私は日本名古屋国立病院で生まれました。日本で生まれたので、当然私は日本人だと思います。しかし、ある日突然、韓国語を勉強しなさいと言われ“どうして”と聞いたら、母は“ママの言うこと聞いたら、良い事があるよ”と言いました。

最初は何も考えずに父母の言葉通りにハングルを一生懸命勉強しました。たまには、朝寝坊もしたいし、日本の学校の宿題が多いとハングルの勉強をしたくない時もあります。しかし、母は私のお尻を叩きながら、学校に行ってハングルを勉強しなさいと大声を出します。理由を聞いたら、訳分らない理由を言います。小さい時は、意味が分からないので、知っているふりをしました。そして、母は満足した顔で、顔をなでながら“私の娘は良い子だ。大人の話をよく聞くと寝ている間に餅が来るよ”と言います。この言葉は母の18番です。私か何かを質問するといつも餅の話で終わりますので、最近、私は、はっきりと意味は分からないですけど、弟たちに“お姉ちゃんの言うこと聞いたら、餅が来るよ”と言っています。小学校5年生になった今、韓国人だからハングルを習わなければいけない理由を再び聞きました。

そしたら、最初の理由は、両親が韓国人だから、私も韓国人。韓国人が韓国語をしゃべれないといけないからだそうです。

そして二つ目の理由は、もし韓国に行って、住むことになったら、言葉で苦労しないためだそうです。

最後に三つ目の理由は、小さい時の方が早く覚えるからだそうです。とにかく習いなさいと言って“餅餅餅”と言います。私は、質問の答えにはなってないと思います。

しかし、今は名古屋韓国学校で友達と一緒に勉強するのが楽しく、土曜日が待ち遠しいです。特にハングル勉強が終わると朝、母が作ってくれたお弁当を持って韓国伝統楽器のチャンゴ教室に行きます。チャンゴは楽しいし本当に素晴らしい楽器だと思います。そして、友達と一緒においしいお弁当を食べられるので、もっと土曜日が待ち遠しいです。

今は両親の意志半分、私の意志半分で名古屋韓国学校に通っていますが、母が私の尻を叩きながらハングルの勉強をさせる理由を少しずつわかるようです。そして、一生懸命勉強して母の言葉通り、いつかは本当に寝ている間に餅が来るかどうか確認したいと思います。

皆さんの中に、もしかして‘寝ている間に餅が来る’という韓国のことわざを知っている方はいますか。そして、本当に餅が来たことがある方いるか知りたいです。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